

서울·경기지역 중등학교의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조사 연구

이원묘·김울상·서정숙*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서울보건대학 식품영양학과*

A Survey for Working Plan of Secondary School Feeding
i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Kyunggi Province

Won Myo Lee · Eul Sang Kim · Jeong Sook Seo*

Department Food and Nutrition, Dan Kook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Food and Nutrition, Seoul Health College, Sungnam,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plan of middle/high school foodservice systems which could properly provide nutrition for juveniles' health.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345 middle schools with 271 parents, 328 students, 180 teachers, and 345 administrators; 163 high-schools with 223 parents, 466 students, 179 teachers, and 163 administrator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or the desirable feeding type as in-school meal plan, 62.2% responded to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feeding type; 10.3% responded to a lunch-box prepared at home; and 38.0% responded to free dining out type. For a feeding operation type, school administrators, teachers and parents favored the current school feeding systems in elementary schools with proportion of 68.2%, 47.7%, and 87.6% as respectively. Also, 20.3% of school administrators, 22.6% of teachers, and 6.9% of parents preferred contract management. A total of 27.6% of teachers, 9.2%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3.7% of parents responded to a lunch-box prepared at hom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sponses for establishing the main body of financial burden to solve the problem of financial burden which could be the most obstacle to bring middle/high school feeding systems into operation. For the management of school feeding systems when brought into operation, 88.7% out of 470 responded schools and 89.9% out of 227 responded teachers reported that an expert should manage school feeding systems. For futuristic direction, an effective joint cooking type between schools which may be the way to solve the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appropriate space and to decrease the financial burden, the problem of transportation for delivering feeding products, low quality of feeding, and sanitation can occur. Therefore, the distance between schools which operate a joint cooking system will affect as a major factor. Furthermore, concrete examination of plans for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school feeding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management system and supervision of operation should become a condition precedent.

KEY WORDS : school feeding, type, operation, lunch-box, catering, financial burden

서론

사회의 환경, 생활 양식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식생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일상적인 식사의 형태가 국제화 및 외식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동물성 식품이나 기포성 음료와 패스트푸드를 선호하여 영양의 불균형 또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편중되는 식이를 하기 쉬워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비만 및 불량한 식사 습관을 유발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발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¹⁾²⁾³⁾. 더구나 하루에 평균 9시간~14시간정도 장시간의 학교 생활로 인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아침 결식 및 경시경향, 열량 위주의 간식, 저녁식사의 과다한 섭취, 불규칙한 식생활, 무절제한 식이요법, 편의주의적 식행태 변화 등의 영양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⁴⁾⁵⁾⁶⁾ 건강상의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현상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건강관리의 실제적인 방법으로 학교급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⁷⁾.

학교급식은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⁸⁾ 1996년 7월 현재 초등학교 급식은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의 72.2%로서⁹⁾ 1953년 구호품으로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3년에 걸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장점과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신체발육 촉진, 건강증진에 정적(正的) 영향, 식품선택능력의 증진, 편식 교정, 식사예절과 태도, 식사와 관련된 위생관리 등의 식습관 개선, 가정과 지역사회 식생활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국민건강의 기초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의 효과가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촌 중학교의 학교급식 실시율은 0.2% 정도에 불과하다.¹⁰⁾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방안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고, 자율과 경쟁의 도입을 강조하고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지방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전인교육, 인간교육의 장으로써 마련된 세부방안에서 초등학교 100% 학교급식 실시에 이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중·고등학생들 학부모의 계속되는 요구로 정부에서도 1997년부터 읍, 면 소재 중·고등학교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과제 중 영유아 보육, 수업 후의 아동 지도 등과 함께 학교급식 실시가 3대 과제로 포함되는 등 각계 각층에서의 중·고등학교 급식의 확대 실시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함께 하고 있으나, 급격한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제도에서 크게 벗어나 학교급식의 전면 자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¹⁾.

이에 본 조사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게 되며, 무엇보다 청소년 자신들과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의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학교급식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의 초등학교 급식제도와 관련해 지역과 유형 등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급식 방향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확대 실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 연구 대상

1996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 내의 중·고등학교와 경기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학교 급식 실시 주체자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중학교는 서울지역 353개교, 경기지역 343개교를 전수 조사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지역은 전체 고등학교(일반, 실업, 예술, 체육, 과학, 외국어) 274개교 중 일반 고등학교 184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의 계열별 유형이 학교급식 실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립주체나 소재지, 학교수보다는 학생수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의 계열별이나 유형에 구분하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했으며, 경기지역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나 학생수가 서울지역보다 적으며, 또한 서울지역과는 달리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종합고등학교의 형태가 많으며,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와는 달리 읍·면소재지에 있으므로 계열이나 유형에 구분하지 않고 248개교를 전수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학교 4개교씩 8개교 및 고등학교 6개교씩 12개교로 총 20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립주체(공·사립),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 조사 방법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형태 및 일반적인 급식관리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정, 보완하여 조사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실시하여 7월 10일까지 회수하였고, 1996년 7월 11일부터 1996년 7월 30일까지 추가 회수하였다. 학교 당국용 설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과

의 협조로 설문하였으며, 응답자는 학교장(교감 또는 서무책임자)이 하도록 하였고, 설문지의 회수는 전송처리하도록 하였다.

3. 조사 자료의 처리

- (1) 조사 자료는 SPSS/PC*(Statistic Packages for Social Science V6.0)를 이용하여 연구 내용별로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해 각각의 빈도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3) 학교급식의 재정적, 제도적, 관리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 각 요인들간의 유의도는 chi-square(χ^2)test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1) 조사 대상에 대한 회수정도

조사 대상 학교는 중학교 696개교, 고등학교 432개교로 총 1128개교로서 설문 응답학교는 표 1와 같이 중학교 345개교, 고등학교 163개교로서 총 508개교로서 45.0%이며,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지역이 각각 66.7%, 58.7%이며, 경기지역이 각각 31.8%, 22.2%였으며, 회수된 508개교 중 10.4%인 53개교는 전송처리시의 파손으로 인해 각 문항별 처리가 불능이었으므로 455개교를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에 대한 회수율은 서울지역이 경기지역보다 높았으며,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설문 회수율은 각각 49.6%, 36.7%, 35.9%로 서울지역은 22.6%, 12.3%, 16.4%이며, 경기지역은 각각 76.6%, 61.1%, 55.4%로써 서울지역에 비해 학교 대상용 설문 회수율은 낮았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회수율은 경기지역이 높았다. 학생용 설문의 회수율은 중학생 82.0%, 고등학생은 38.8%로 2학년이 53.8%, 3학년이 22.2%로 고등학교

표 1.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회수율

조사대상	구 분	계		서 울		경 기					
		대 상	회 수	%	대 상	회 수	%	대 상	회 수	%	
학 교	중학교	공 립	507	246	48.5	240	155	64.6	267	84	31.5
		사 립	189	99	52.4	113	81	71.7	76	25	32.9
		계	696	345	49.6	353	236	66.7	343	109	31.8
	고등학교	공 립	181	81	44.8	55	26	47.3	126	31	24.6
		사 립	251	82	32.7	129	82	63.6	122	24	19.7
		계	432	163	37.7	184	108	58.7	248	55	22.2
계	1128	508	45.0	537	344	64.1	589	164	27.8		
학 생	중학생	2학년	400	328	82.0	200	133	66.5	200	195	97.5
		고등학생	2학년	600	323	53.8	300	48	16.0	300	275
		3학년	600	133	22.2	300	0	0.0	300	143	47.7
	계	1200	466	38.8	600	48	8.0	600	418	69.7	
	계	1600	794	49.6	800	181	22.6	800	613	76.6	
	학 부 모	중 학 교	2학년	400	271	67.8	200	73	36.5	200	198
고등학교			2학년	600	243	40.5	300	25	8.3	300	218
		3학년	600	73	12.2	300	0	0.0	300	73	24.3
계		1200	223	18.6	600	25	4.2	600	291	48.5	
계		1600	587	36.7	800	98	12.3	800	489	61.1	
교 사		중학교	공 립	200	136	68.0	100	38	38.0	100	98
	사 립		200	44	22.0	100	44	44.0	100	0	0.0
	계		400	180	45.0	200	82	41.0	200	98	49.0
	고등학교	공 립	300	95	31.7	150	0	0.0	150	95	63.3
		사 립	300	84	28.0	150	0	0.0	150	84	56.0
		계	600	179	29.8	300	0	0.0	300	179	59.7
	계	1000	359	35.9	500	82	16.4	500	277	55.4	

3학년 학생의 응답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특히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대상과 교사의 회수는 한 군데도 없었다. 설문 조사지의 배포와 회수는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협조 공문으로 실시하였는데도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아직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인 업무 연결이 부족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을 우려한 비협조와 무성의 등으로 회수율이 저조하였다고 사료된다.

2) 조사 대상별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공립학교가 더 많은 분포이며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공·사립 학교의 구분은 설립주체에 따라 재정적, 제도적인 운영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1996년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어서 중학교는 국·공립이 68%, 77.8%로 사립학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고등학교는 각각 29.9%, 50.8%로 서울은 사립학교가, 경기도는 국·공립학교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¹²⁾ 응답 대상 전체 학교의 경우에서 국·공립 중학교는 71.8%, 사립 중학교는 28.2%이고, 고등학교는 공립이 49.4%, 사립이 50.6%였다.

학교 위치는 도시지역이 85.9%, 농어촌 12.1%, 도서벽지가 2.0%였고, 학급수는 31~40학급, 21~30학급이 각각 34.1%, 33.2%로 전체의 67.3%로 가장 많았다. 학생

표 2.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 사항 빈도(%)

구분	계	중	고	
설립주체	국·공립	292(64.2)	216(71.8)	76(49.4)
	사립	163(35.8)	85(28.2)	78(50.6)
학교위치	도시	391(85.9)	257(85.4)	134(87.0)
	농어촌	55(12.1)	37(12.3)	18(11.7)
	도서벽지	9(2.0)	7(2.3)	2(1.3)
학급수	10 이하	35(7.7)	27(9.0)	8(5.2)
	11~20	54(11.9)	32(10.6)	22(14.3)
	21~30	151(33.2)	112(37.2)	43(27.9)
	31~40	155(34.1)	97(32.2)	54(35.1)
	41~50	47(10.3)	27(9.0)	20(13.0)
	51 이상	13(2.8)	6(2.0)	7(4.5)
	학생수	100 이하	2(0.4)	2(0.7)
101~500		42(9.3)	30(10.4)	12(7.8)
501~1000		55(12.1)	35(11.4)	20(13.0)
1001~2000		294(64.6)	210(70.9)	84(54.5)
2001~3000		59(13.0)	24(6.6)	35(22.7)
3001~4000		2(0.4)	0(0.0)	2(1.3)
4001 이상		1(0.2)	0(0.0)	1(0.7)

수는 1001명~2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중학교가 70.9%, 고등학교는 54.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4000명 이상의 고등학교가 1개교, 100명 이하인 중학교가 2군데로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 규모별로 다양한 급식형태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 학생과 교직원의 남·녀의 성비는 남자가 39.3%, 47.4%이며, 여자는 60.7%, 52.6%였다. 응답 학생들의 초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 경험 유무는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6.2%, 전혀 없는 학생이 63.8%로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재학시절의 학교급식 실시율과 비슷한 분포이다. 교사들의 경우 담당교과에서 학교급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가정과, 체육과 교사는 응답 교사의 54.9%였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담임의 유무 정도는 응답 교사의 57.9%였다.

응답 학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거주지는 도시지역이 88.9%, 농어촌 6.9%, 도서벽지 4.2%였으며, 생활의 정도는 중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92.0%였다. 교육의 정도에서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92.3%였으며 자녀의 수는 2명이 69.3%, 3명은 18.4%이고 1자녀를 둔 학부모는 8.2%였으며 4명, 5명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는 각각 3.7%, 1.4%였다.

2. 바람직한 학교급식의 형태와 수요 조사

학부모들은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이 확대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에서 표 3과 같이 587명의 응답 학부모 중 학교급식 시설, 운영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55.2%, 학교급식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이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20.0%, 현행처럼 가정에서 준비하는 도시락으로도 괜찮아서 9.6%,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가 10.4%, 기타 4.8%로 조사되어 경제적인 부담 이유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응답자가 적었으나 빈도로 보았을 때, 농어촌에서는 72.7%, 도시는 54.7%, 도서벽지는 35.7%가 경제적인 부담을 꼽았다. 초등학교에서의 급식경비 부담은 거주 유형별로 부담을 다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급식경비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시설설비의 유지비, 연료비, 인건비)는 당해 급식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금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으로 급식학교 유형을 구분하여 국고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매년 학교급식 시설비, 운영비(인건비 및 연료비),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급

표 3.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 빈도(%)

구분	거주지			총 계
	도시	농어촌	도서벽지	
경제적 부담	285(54.7)	29(72.7)	8(35.7)	322(55.2)
이해도 부족	105(20.1)	6(13.6)	7(28.6)	118(20.0)
현행이 좋아서	56(10.7)	0(0.0)	2(7.1)	58(9.6)
잘 모르겠다	47(9.0)	6(13.6)	7(28.6)	60(10.4)
기타	29(5.6)	0(0.0)	0(0.0)	29(4.8)
총 계	522(100.0)	41(100.0)	24(100.0)	587(100.0)

식에 관한 경비 일체는 자체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식사 해결 방안은 표 4와 같이 초등학교 급식 형태 45.8%, 가정의 도시락 9.3%, 외식·매식 등의 자율화 38.0%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에서 학부모는 88.6%가 초등학교 형태의 학교급식을 원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47.6%였다. 전문업체에 의한 위탁급식은 교사의 23.8%, 학부모와 학생은 각각 6.4%, 38.0%였으며, 교사 27.1%, 학부모와 학생이 각각 3.3%, 9.3%가 현행대로 가정에서 지참해오는 방법을 식사 해결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대한 무응답자는 총 17.8%로써 학교 관리자 6.8%, 학부모 18.1%, 교사 41.5%로써 교사의 무응답률이 높았다. 교사는 학교에서 구내식당 등의 운영이 되어 식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급식의 운영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학교, 교사, 학부모들 각각 표 5와 같이 현행 초등학교 형태의 학교급식은 각각 68.2%, 47.7%, 87.6%로, 급식 위탁회사의 운영은 학교 20.3%, 교사 22.6%, 학부모 6.9%, 가정에서 준비하는 도시락의 형태는 교사 28.3%, 학교 9.2%, 학부모 3.7%였으며, 도시락 회사에서 완제품을 반입하는 형태는 교사 1.1%, 학교 1.7%, 학부모 1.8%의 의견을 보였다. 급식을 실시할 경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급식의 형태에 대한 학교, 학부모, 교사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냈는데($\chi^2=140.59$, $p<0.001$), 세 그룹 모두에서 초등학교 급식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은 같으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급식 위탁이라든지, 현행과 같이 가정에서부터 싸오는 도시락의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급식형태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학교급식의 운영 형태에서 학교급식 경험유무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현행 초등학교 형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나타내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설비·운영·인건비 등의 재정적 부담은 급식 실시가 지연되는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경우 공

립학교이다. 학교급식 실시는 재원의 주체가 학교의 설립 의무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를 학교급식 후원회등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립과 사립 등의 설립 주체나 급식의 운영 형태에 따라 참여도가 차이가 있다. 표 6과 표 7에서와 같이 설문한 결과 공·사립 모두에서 재정적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초등학교의 급식 형태로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공립학교는 국가가,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이 학교 설립자인데 공립과 사립학교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부모의 경우 초등학교에 이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국가에서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54.60%,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17.9%, 실시되지 않는 이유를 잘 몰라서 7.1%, 부모가 싸주는 도시락이 더 좋기 때문이 16.0%의 순이었으며, 표 8과 같이 학교급식 경험유무별로 학교급식 미확대 이유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 급식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두 그룹 모두에서 재정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3. 재정적 측면 조사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 후원금을 기부한 경험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급식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학부모와 학교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표 9).

재정부담 주체 설정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간의 응답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여 주고 있는데($\chi^2=178.60$, $p<0.001$),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의 세 집단에서 모두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설립자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하더라도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높은 요구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의 주체가 학교 설립자만이 아니고 학부모와 공

표 4. 학교에서의 식사 해결 방안

빈도(%)

구 분	초등학교 급식형태	외식·매식등 자율화		현 행	기 타	계	무응답	총 계
		급식 위탁	회사 도시락	가정 도시락				
교 사	100(47.6)	50(23.8)	2(1.0)	57(27.1)	1(0.5)	210(100.0)	149(41.5)	359
학부모	426(88.6)	31(6.4)	8(1.7)	16(3.3)	0(0.0)	481(100.0)	106(18.1)	587
학 생	364(45.8)	302(38.0)	0(0.0)	74(9.3)	0(0.0)	740(100.0)	54(6.8)	794
계	890(62.2)	383(26.8)	10(0.7)	147(10.3)	1(0.0)	1431(100.0)	309(17.8)	1740

표 5. 학교급식을 실시할 경우의 급식형태

빈도(%)

구 분	초등학교 급식형태	위탁급식	회사 도시락	가정 도시락	기 타	계
학교 관리자	310(68.2)	93(20.3)	8(1.7)	42(9.2)	2(0.4)	455(100)
학 부모	495(87.6)	39(6.9)	10(1.8)	21(3.7)	0(0.0)	565(100)
교 사	167(47.7)	79(22.6)	4(1.1)	99(28.3)	1(0.3)	350(100)
계	981(71.0)	213(15.4)	22(1.6)	163(11.8)	3(0.2)	1370(100)

표 6. 설립 주체별 급식 형태 분석

빈도(%)

구 분	초등학교 급식형태	위탁급식	회사 도시락	가정 도시락	기 타	계
공 립	212(67.7)	61(19.5)	6(1.9)	31(9.9)	3(1.0)	313(100)
사 립	98(70.5)	30(21.6)	2(1.4)	9(6.5)	0(0.0)	139(100)
계	310(68.6)	91(20.1)	8(1.8)	40(8.8)	3(0.7)	452(100)

표 7. 현행 초등형태의 급식 실시를 가정했을 때의 설립주체별 참여도 분석

빈도(%)

구 분	적극 참여			계
	참여의사 있다	하지 않겠다	계	
공 립	120(40.7)	156(52.9)	19(6.4)	295(100.0)
사 립	60(45.8)	63(48.1)	8(6.1)	131(100.0)
계	180(42.3)	219(51.4)	27(6.3)	426(100.0)

$\chi^2=0.98, p=0.61$

표 8. 급식 경험유무와 급식 형태의 상관성 - 학부모

빈도(%)

구 분	유	무	총 계
초등급식	236(90.7)	260(85.0)	495(87.6)
위탁급식	13(5.0)	26(8.5)	39(6.9)
회사 도시락	4(1.5)	6(2.0)	10(1.8)
가정 도시락	7(2.7)	14(4.6)	21(3.7)
총 계	260(100.0)	360(100.0)	566(100)

$\chi^2=4.450, p=0.217$

표 9. 급식 경험유무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참여도

빈도(%)

구 분	유	무	총 계
국가부담 원칙	39(15.0)	40(13.1)	79(14.0)
학부모 공동	203(78.1)	244(79.7)	447(79.0)
학부모 전액	18(6.9)	22(7.2)	40(7.0)
총 계	260(100.0)	306(100.0)	566(100.0)

$\chi^2=0.438, p=0.803$

동으로 부담을 한다면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설립 주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문제의 해결방안은 학교급식의 실시이다. 구호급식으로 시작된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이 발전된 계기는 학교급식 시설·설비비를 비롯한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보조등 막대한 소요재원의 재정부담을 학교 설립자를 기본으로 하여 수익자인 학부모의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학교급식후원회에 관한 법령이 제도화되고서 부터이다. 조사 대상자 중 학교 당국 40.7%, 교사 32.8%, 학부모의 16.4% 정도만이 학교의 설립자가 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와 학부모가 공동으 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교가 49.0%, 학부모가 80.2%, 교사가 5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10). 후원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 공동 부담 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현행 초등학교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로 학부모의 인식이 높아져 있고 아울러 학교 급식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있어서 학부모 후원금 운영에 대한 결과로 볼 때 급식을 새로이 신설하는 학교에서는 현행 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존의 급식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후원금 모금 에 대한 호응도가 신설 급식학교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찬조금 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후원금 모금에 대한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신설 급식학교에서는 현행 제도로, 시설의 유지관리와 노 후 대비 및 인건비의 보조금 지급 등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는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의 급식학교에서는 후 원금의 모금방법에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0. 재정적 부담의 형태

구 분	학 교 설립자	설립자와 학부모	학 부모	빈도(%)
				계
학 교	171(40.7)	206(49.0)	43(10.3)	420(100.0)
학부모	93(16.4)	455(80.2)	19(3.4)	567(100.0)
교 사	109(32.8)	186(56.0)	37(11.1)	332(100.0)
계	373(28.3)	847(64.2)	99(7.5)	1319(100.0)

$\chi^2=178.61, P<0.001$

표 11. 재정적 부담과 설립주체별 상관성 분석

구 분	설립자	공동 부담	학부모 전담	빈도(%)
				계
공립학교	113(39.5)	144(50.3)	29(10.1)	286(100.0)
사립학교	49(40.5)	59(48.8)	13(10.7)	121(100.0)
계	162(39.8)	203(49.9)	42(10.3)	407(100.0)

$\chi^2=0.94, p=0.95$

4. 급식시설 및 공간 부지 조사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자체 조리시설과 식 당 등을 갖추고 직접 조리한 급식품이 제공되고 있으 며, 지역을 고려한 일부 농·어촌, 도서벽지형의 학교에 서 학교간 공동조리를 실시하고 있다. 급식품의 관리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학교내 단독조리의 형태가 가 장 좋은 방법이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공동조리에 의한 학교급식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를 관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표 12와 같이 학교에서의 단독 조리시설이나 식당의 확보가 현재 가능한 학교는 응답 학교의 23.0%이며, 만 들 수 있다는 학교가 25.3%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 매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간의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간 확보가 어렵다 고 응답한 학교는 51.7%였다.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단독 조리 형태가 아닌 공동조리를 이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절감을 위해 효과적인 학교간 공동조리 형태의 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급식 품의 운반에 따른 교통, 급식의 질적 저하와 위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하는 학교간의 거리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48.3%의 학교는 급식시설을 만 들기 위한 공간이나 유휴교실을 갖고 있거나 만들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의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교는 51.7%였다.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현재 0세~14세까지의 연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6%이며 인구의 추이로 볼 때 2010년은 19.1%, 2020년은 16.0%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경 향으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교실난의 해소와 함께 급 식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의 연차적인 확대 계획에 의거 공간 활 용이 가능하고, 공동으로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형태의 급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3은 초등학교와 응답 학교간의 거리 분포를 나타 낸 표로서 학교간의 거리가 초등학교와 도보로 5~10분

표 12. 유휴교실 공간유무

빈도(%)

구 분	서 울			경 기			총 계
	중	고	소 계	중	고	소 계	
있 다	44(21.6)	31(31.0)	75(24.7)	11(12.5)	15(31.9)	26(19.3)	101(23.0)
만들 수 있다	52(25.5)	24(24.0)	76(25.0)	27(30.7)	8(17.0)	35(25.9)	111(25.3)
없 다	108(52.9)	45(45.0)	153(50.3)	50(56.8)	24(51.1)	74(54.8)	227(51.7)
계	204(100.0)	100(100.0)	304(100.0)	88(100.0)	47(100.0)	135(100.0)	439(100.0)

표 13.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

구 분	학교수(%)
도보 5~10분 거리	339(74.5)
도보 20~30분 거리	91(20.0)
교통편 5~10분	21(4.5)
교통편 20~30분	4(0.8)
그 이상	1(0.2)
계	455(100.0)

거리에 위치한 학교 수는 74.5%, 도보로 20~30분 거리가 20.0%, 교통편으로 5~10분이 4.5%로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간의 공동급식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14에서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학교 중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도보로 5~10분 정도인 학교는 75.5%였으며, 도보로 20~30분 정도 걸린다고 응답한 학교는 19.8%, 교통편으로 5~10분 정도는 3.8%로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5.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조사

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이 실시될 경우, 운영관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5, 표 16과 같다. 학교급식의 운영은 총 응답학교 455개교 중 88.7%가 학교급식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36명의 응답 교사 중 92.0%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급식 운영주체에 대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의견에서 두 집단 모두 전문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급식관리에 대한 의견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급식은 좋은 식습관 형성과 편식 교정 등의 식생활 지도를 함께 하는 학

표 14.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와 유휴공간과의 상관성

빈도(%)

구 분	만들 수 있다	공간 있다	공간 없다	계
도 보 5~10분	78(68.4)	82(78.1)	178(75.5)	338(74.3)
도 보 20~30분	31(27.2)	16(15.2)	47(19.8)	94(20.6)
교통편 5~10분	5(4.4)	6(5.7)	9(3.8)	20(4.4)
교통편 20~30분	0(0.0)	1(1.0)	2(0.8)	3(0.7)
계	114(100.0)	105(100.0)	236(100.0)	455(100.0)

표 15. 학교급식 운영관리 전담자

빈도(%)

구 분	전문가 관리	학교 서무부	교사 겸직	계
학 교	404(88.7)	34(7.5)	17(3.8)	455(100.0)
교 사	309(92.0)	17(5.1)	10(3.0)	336(100.0)
계	713(90.1)	51(6.5)	27(3.5)	791(100.0)

* = 0.25, p = 0.988

표 16. 설립주체별 급식 운영자 분석

빈도(%)

구 분	전문가 관리	학교 서무부	교사 겸직	계
공 립	271(86.6)	31(9.9)	11(3.5)	313(100.0)
사 립	131(93.6)	4(2.9)	5(3.6)	140(100.0)
계	402(88.7)	35(7.7)	16(3.6)	453(100.0)

* = 6.75, p = 0.031

표 17. 교사가 생각하는 학교급식 지도의 방향

구 분	빈 도 (%)
식생활 지도와 병행	285(86.9)
좋은 식사 제공	37(11.3)
기 타	6(1.8)
계	328(100.0)

교급식으로 내실화,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표 17과 같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식사의 제공만이 아닌 식생활지도도 병행하는 초등학교 급식 형태의 운영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학교급식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1996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학교 345개교, 고등학교 163개교와 중학생 328명, 고등학생 466명과 학부모 587명, 교사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교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급식의 형태로 현행 초등학교와 같은 단독조리 형태의 급식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의 급식이 실시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인 학교급식 시설비, 운영비 등의 재정적 부담의 주체 설정은 학교 당국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시설 설치와 식당 등의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학교는 조사대상 학교의 48.3%였으며, 51.7%의 학교는 공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인근학교 또는 공동급식센터의 운영 등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기를 기대하였다.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경우, 95.3% 이상이 도보로 5~10분, 20~30분 거리에 있으므로 초등학교와의 공동급식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급식의 운영 관리면에서 영양·급식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교급식 경험이 편식 교정, 바른 식습관의 정착에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여 식사의 제공만이 아닌 식생활 지도를 병행하여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실시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급식의 형태를 6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한다.

제 1단계로는 현행 초등학교 급식형태의 확대 방안

이다.

제 2단계는 학교와 학교간의 공동조리를 통한 활용성 증대 방안이다.

제 3단계는 지역내 공동급식센터 건립방안이다. 지역내의 학교는 5~10개교, 학생수는 약 5,000~10,00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동급식센터는 학교급식시설의 부지 문제, 설비 문제, 인건비 등을 대상 학교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역 교육청의 지휘 감독 아래 관리, 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 4단계는 일부 위탁 급식체도의 도입이다. 국가나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외부 위탁회사에 밥, 김치 등 일부 음식 중 공통적으로 식단에 사용되고 식중독등 위생 측면의 위해요소가 없는 완제품 음식의 반입이 실제로 허용되는 방안이다. 또한, 식기 세척등도 외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주는 방안도 이에 포함된다.

제 5단계는 전문급식업체에 설비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방안이다.

제 6단계는 완제품인 도시락의 반입이다. 국가나 학교의 재정적 부담, 운영관리상의 부담을 없애는 방안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 도시락업체의 영세성 및 법적인 시설기준 등 그 관리가 무방비 상태인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은 크게 의무교육 대상 학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형태를 제 1단계인 단독조리 형태와 제 2, 3단계인 공동조리 형태 및 공동지역 급식센터를 통한 급식의 형태로 실시되어야 하며,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실시형태는 초·중학교와 같은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러 형태의 급식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아울러 관리시스템의 제도와 운영의 감독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급식은 식생활 지도와 병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은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1단계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초 영양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맞는 제도의 개선과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2단계로 중학교의 경우에는 급식 실시를 통한 급식지도반의 운영, 클럽활동을 통한 가사반동의 운영, 남·여 공통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가정교과의 조리 실습시간의 운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 3단계로 고등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실제적인 교육의 실시가 어려우므로 청소년기의 영양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절제한 식이요법등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양에 대한 바른 지식의 전달과 영양지도를 할 수 있는 영양상담 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Shannon, BM, Parks SC. Fast Foods : A Prospective on their nutrition impact, J Am Diet Assoc. 76(3), pp.242-247, 1980.
2. Truswell As, Ian Darton-Hill : Food Habits of Adolescents, J Nutr Rev. 39, 1981.
3. 심경희, 김성애, 충남대 식영과 : 도시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의 이용 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6), pp.804-811, 1993.
4. 장영숙 : 서울시내 중학생의 도시락 영양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5. 이경신, 최경숙외 6명 : 도시 국민학교 급식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1(6), pp.392-409, 1988.
6. 윤해란 : 여고생의 식생활조사와 5가지 기초식품군별 기초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7. 광동경 : 고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방향, 고등학교 급식의 조기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세미나, pp.5-16, 1995.
8. 학교급식법, 개정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3호.
9. 학교급식 효과분석(1986-1989), 서울특별시교육청, 1992.
10. 교육부 학교보건체육과 : 초등학교 급식확대 자료, 1996.
11. '96 학교급식 연수회 (후반기) 자료집, 교육부, 1996.
12. 이상덕 :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영양사 보수교육 자료집, 대한영양사회, pp.73-124, 1996.